

함께 만드는 수업, 협력수업

교사와 예술강사를 위한 협력수업 길라잡이



목차 Contents

1장 협력수업 진단하기	p.07
--------------	------

협력수업 사례 #1.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일기	p.10
-------------------------------	------

2장 협력수업 알아보기	p.15
--------------	------

협력수업 사례 #2. 최 교사와 홍 강사의 국악수업 이야기	p.30
-------------------------------------	------

3장 협력수업의 조건	p.33
-------------	------

협력수업 사례 #3. 끌어주고 엮어가며 아이들 사이로 녹아들기	p.40
---------------------------------------	------

4장 협력수업 Q&A	p.46
-------------	------





들어가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상상하고, 창조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예술적 경험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는 일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예술은 특별한 교육적 힘을 갖게 됩니다. 협력수업은 학교 교육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하고 예술의 교육적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함께 만드는 수업, 협력수업: 교사와 예술강사를 위한 협력수업 길라잡이」는 제목 그대로 협력수업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반드시 따라야 할 매뉴얼이 아니라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력수업의 방향을 그려보고, 교사와 예술강사가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협력수업으로의 여행을 떠났던 교사와 예술강사의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길라잡이를 통해 예술교육 현장에서 여러분의 협력수업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1장 협력수업 진단하기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협력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현황을 진단하고, 왜 협력수업이 어려운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시작합니다.

2장 협력수업 알아가기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협력수업의 의미를 살펴보고, 일회적인 협의가 아닌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대화의 과정으로서 협력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3장 협력수업의 조건

좋은 협력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을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 환경, 의사소통 관계 등을 구축해 갈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합니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협력수업을 위한 준비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4장 협력수업의 Q&A

협력수업에 대하여 교사와 예술강사가 가질 수 있는 질문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과 해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는 생각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협력수업의 실제

교사, 예술강사, 연구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재구성된 협력수업 실제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협력수업을 위한 개개인의 역할과 상호작용, 노력과 어려움 등 실제적인 협력수업의 경험이 서술적으로 그려져 있어 협력수업의 현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약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상상하고, 창조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예술적 경험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는 일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예술은 특별한 교육적 힘을 갖게 됩니다. 협력수업은 학교 교육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하고 예술의 교육적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함께 만드는 수업, 협력수업: 교사와 예술강사를 위한 협력수업 길라잡이」는 제목 그대로 협력수업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반드시 따라야 할 매뉴얼이 아니라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력수업의 방향을 그려보고, 교사와 예술강사가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협력수업으로의 여행을 떠났던 교사와 예술강사의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길라잡이를 통해 예술교육 현장에서 여러분의 협력수업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협력수업 진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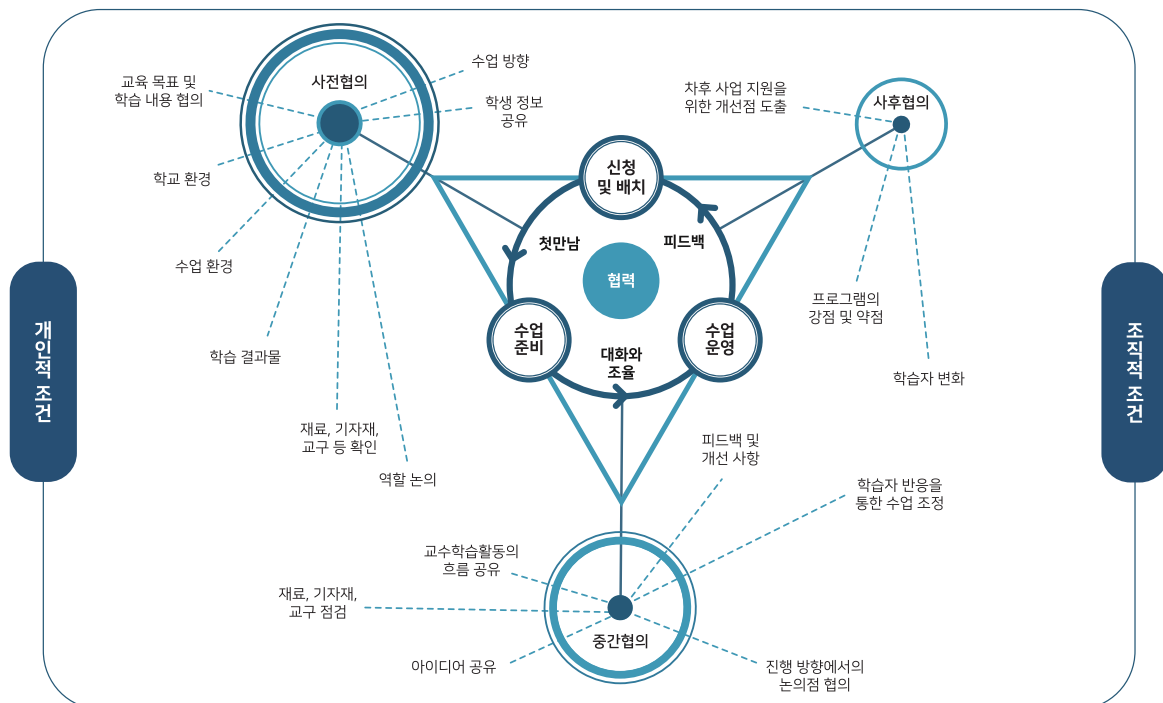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실제적인 실행 주체인 교사와 예술강사에게 협력수업은 종종 알고 있지만 미뤄둔 '숙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즉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력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협력수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교사 혹은 예술강사가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노력이나 열정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협력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 즉 문화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을 추동하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익숙한 자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 **협력수업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협력수업에 대한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협력수업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협력수업의 의미

예술강사와 교사의 협력은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지식중심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예술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협력수업은 교사와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과 수업에 대한 책무성을 공유하고, **교실 안에서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협력수업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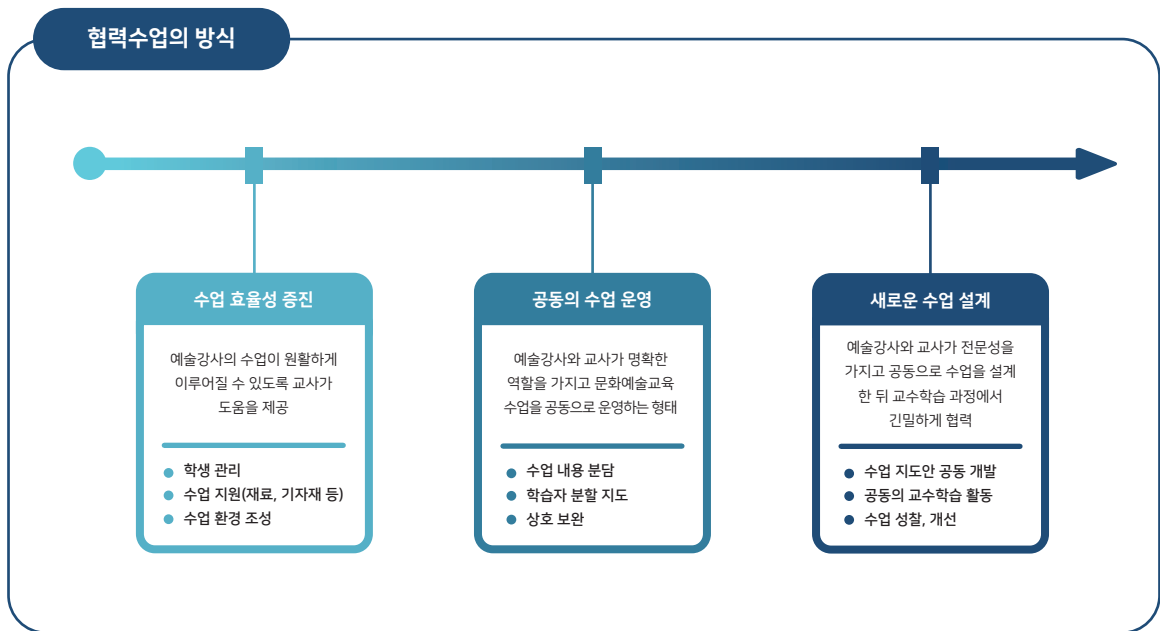
협력수업의 과정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한 해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순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만남인 사전 협의로 시작하여, 대화와 조율의 과정인 중간 협의, 그리고 성찰과 피드백을 위한 사후 협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소통이 협력수업의 기초**가 됩니다.



협력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와 예술강사가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수업에 함께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수업에서의 역할을 주 혹은 보조의 개념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교사와 예술강사 사이에 경계를 긋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 나누기로서의 역할 분담보다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교사 혹은 예술강사로서의 역할을 상호적 관계에서 인식하고, 각기 다른 예술수업의 장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수업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될 때 성공적인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된 틀 안에서의 역할 분담이 아닌 소통을 통한 역할 인식**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보다는 협의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력수업의 방식

협력수업을 ‘수업 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대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수 상황에 집중하여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협력수업은 **협력의 정도에 따라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에서 코칭을 통한 새로운 예술교육의 실행까지의 연속선 상에 위치합니다.** 즉 수업 안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전문성이 연계되는 빈도와 밀도를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는 단계이자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력수업의 조건

하나의 유기체가 적절한 조건 안에서 성장하듯이 협력수업 또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협력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조직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 요인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혹은 학교 문화 안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요인입니다. **관리자의 지지, 협력에 대한 보상, 협력 공동체**가 협력을 위한 교사와 예술강사의 노력에 추진력과 지속성을 부여합니다. 개인적 요인은 교사와 예술강사가 개인적 혹은 대인적 차원에서 가져야 할 인식, 태도입니다. 교사와 예술강사의 **성공 경험과 협력 의지**가 필요합니다.

협력수업 checklist

자, 이제 협력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보세요 (4=매우 그렇다 / 3=그렇다 / 2=다소 그렇다 / 1=전혀 그렇지 않다)	4	3	2	1
✓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협력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협력수업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에 대하여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협력수업의 의미와 이에 따른 역할을 교사 혹은 예술강사와 공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교사 혹은 예술강사로부터 협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 받으신다면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먼저 교사 혹은 예술강사에게 협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협력수업을 하고자 할 때, 학교의 관리자 혹은 동료교사가 지지하거나 격려해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협력수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노력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학교에서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협력수업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협력수업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고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협력수업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예술을 통해 학교 수업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협력수업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당신의 협력 지수는? () 점				



협력수업의 실제

#1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일기

예술적 경험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상의 협력일기로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예술강사의 첫 만남, 실행의 경험, 수업 후의 성찰이 각각의 시점에서 일기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협력수업의 방법, 역할, 도전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좋은 예술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최 교사와 홍 강사의 국악수업 이야기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사와 국악분야 예술강사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감성 역량과 음악적 소통역량을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악수업을 준비 중인 학교와 교사 그리고 예술강사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3 끌어주고 엮어가며 아이들 사이로 녹아들기

새로운 재료와 경험으로 상상의 문을 열어주는 공예 수업... 초등학교 2학년 꼬맹이들을 바라보는 교사와 예술강사 두 분의 눈길이 닮아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예쁜 꿈이 슈링클지에 피어오르기를 바라는 두 선생님의 마음은 서로를 끌고 엮으면서 2시간의 수업을 아이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사례는 행복한 협력수업의 장면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협력수업 Q&A

협력수업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아닌 함께 풀어가야 할 교육적 어젠다입니다. 협력수업에 대하여 교사와 예술강사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교사와 예술강사의 실천을 돕는 생각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협력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 Q1. 교사와 예술강사의 진지한 협력수업은 학생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 Q2. 협력수업을 위해 교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 Q3. 협력을 위한 접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Q4. 올해 새로 배정된 학교에 사전방문을 가는 예술강사입니다. 사전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 Q5.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Q6. 협력수업 시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가요?
- Q7. 교사 혹은 예술강사가 협력수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8. 한 학년이 7개 반인 학교에서 2개 학년을 맡고 있는 예술강사입니다. 수업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담임 선생님이 14명인데, 각각의 교사와 협력수업이 가능할까요?
- Q9. 예술강사와 협력수업을 마친 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추수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 Q10. 전공이 같은 교사와 예술강사가 만났을 때 서로 전문성이 겹쳐 협업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I. 협력수업 진단하기

어느 한 교실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막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그려보자. 이 순간을 위해 예술강사는 자신의 친숙한 작업 환경에서 나와 학교로 향했을 것이고, 반면 학교에서는 찾아오는 예술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을 뒤로 돌려 생각해 보면,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업이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신청, 배치, 연수, 제도 마련 등 여러 기관과 부처가 관여된 복잡한 체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이처럼 여러 주체를 거쳐 전달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최현묵, 김인, 2017), 협력수업의 이야기 또한 협력이 간단한 처방만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실행 주체인 교사와 예술강사에게 협력수업은 종종 알고 있지만 미뤄둔 '숙제'처럼 느껴지기 쉽다. 즉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부담이 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실행 주체인 교사와 예술강사에게 협력수업은 종종 알고 있지만 미뤄둔 '숙제'처럼 느껴지기 쉽다. 즉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을 2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복잡한 숙제를 축소하는 것이다. 막상 협력수업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 협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협력을 주도해야 하는지 등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수업에서 수업보다는 협력을 이야기하고, 협력의 의미 또한 협조 혹은 배려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협력수업을 설명한다. 이러한 경우 실행 주체는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안에서 협력으로 인한 수업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교사와 예술강사가 한 교실에? 내가 있으면 수업하는 데 불편해 하실 텐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정확히 '협력'이 어떤 의미이지?

부담스러운 과제를 안고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어려운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다. 실제로 협력수업은 교사 혹은 예술강사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실에서의 협력수업 이면에는 기관 간에, 부처 간에 그리고 예술과 교육 간의 상호적인 연결 관계에 대한 합의와 공감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수업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연구에서는 협력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협력수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 분담**을 알기 어려움
-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의사소통** 부재: 협력수업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
- 협력을 위한 **시간** 할애가 어려움
-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협력수업의 결과나 성과에 대해 만족할 만하게 **가시화된 지도안**이나 모델이 없음

(민경훈, 2014, p. 14)

위와 같이 협력수업에 대한 교사와 예술강사의 이해, 의사소통, 시간, 역량 강화, 가이드와 같은 요인들이 종종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인식적 차이가 협력수업에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예술강사들은 교사들이 밀린 행정업무나 개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협력수업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교과과정이 정확한 교사들과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는 의견 등 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사들 역시 예술강사의 수업시간이 교과 과정에 잘 부합하지 않고, 비교육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 지켜야 할 규율을 깨뜨리는 예술강사들이 있다는 의견,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으로 예술강사의 수업시간을 생각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며, 수업 협력의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교사와 예술강사들의 인식 격차** 외에도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지속적인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한계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조은영, 윤현경, 강지선, 김광구, 2018, p. 43)

위의 글은 이미 친숙한 협력수업 이야기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협력수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새롭게 '수업 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수업을 숙제가 아닌 학생과 교사, 예술강사 모두를 위한 배움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협력수업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인식적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협력수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교사 혹은 예술강사가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노력이나 열정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협력수업을 시도한다고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협력수업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한 형태로 자리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협력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 즉 문화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을 추동하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둘째, 익숙한 자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 협력수업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예술가”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육자로서의 활동이 예술가로 하여금 예술작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도록 하며, 교육 활동과 예술 창작에 공통적으로 내재한 관계적 속성을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양은아, 석지혜, 2010). 예술강사의 입장에서 협력수업은 단지 수업의 효율성을 위한 것을 넘어 교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협력수업을 위한 생각의 전환

1. 성공적인 협력수업을 위해 교사 혹은 예술강사가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2. 협력수업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존의 협력수업에 대한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협력수업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교사에게 협력수업은 수업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된다. '가르침은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예술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여왔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혁규(2013)는 가르치는 행위의 예술적 측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알려져 있는 수업 모형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교사는 예술가이다.

(이혁규, 2013)

첫째, 알려져 있는 수업 모형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교사는 예술가이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의 삶처럼 이런 교사의 실천에는 열정과 교육적 상상력이 넘치도록 흘러나온다.

둘째, 가르침은 예술이라는 은유는 목적과 수단의 분리를 거부한다. ...마치 조각가가 최종 조각품을 완성하기까지 자신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학생들의 미세하고 풍부한 반응에 공명하는 것. 즉흥성과 우연성에 개발되는 것. 기다림과 여백에 익숙해지는 것.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업의 목표와 수단은 상호 혼용되어진다.

셋째, 교사는 자연스럽게 수업의 미세한 질적 특성에 주목한다. 학생과 상황에 대한 민감성, 즉각적이고 사려 깊은 행동 능력, 교육적 주의력과 배려 등 과학적 관리나 목적-수단적 방법론에서 놓치기 쉬운, 계량화가 불가능한 것들에 교사는 관심을 갖는다.

넷째, 예술적 수업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미적 체험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은 설명하기가 다소 어렵다. ...교사는 가르침에 몰입하고 학생들은 가르침에 아름답게 전염되는 지적 유대와 정서적 융합의 체험!

이와 같은 수업의 예술적 측면은 우리에게 무척 낯설다. 우리의 눈이 수업의 과학성 측면에 오랫동안 훈련되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혁규, 2013, p. 222-224)

가르치는 행위가 가진 예술적 측면은 교사와 예술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와 함께하는 수업이 가르침의 예술성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경험이 된다는 점에서 협력수업은 교사의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가르치는 행위가 가진 예술적 측면은 교사와 예술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예술가와 함께 하는 수업이 가르침의 예술성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경험인 것이다. 점에서 협력수업은 교사에게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수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왜 우리는 교실에 한 명 이상의 교수자가 있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할까? 과연 한 교실 안에 있는 교사와 예술강사는 불편한 관계일까? 반대로 성공적인 협력수업을 경험한 교사와 예술강사들은 협력을 통하여 수업의 역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아이들의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나면 힘든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한다. 학교에서 '협력이 가능하겠어?'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만약 ~라면?'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업을 통해 수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예술을 통한 학교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와 예술강사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력수업의 실제 #1.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일기



예술강사의 일기

[2018년 2월 12일 사전 협의 첫날]

지난 주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에 예술강사로 출강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학교 담당 선생님과 사전 협의를 하러 학교에 갔다. 예술강사로서 학교 담당 선생님과 만남은 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사전 협의에 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어떤 선생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연간계획을 요구하기도 하신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다. 선생님들이 연극 수업을 진행할 단원을 먼저 추출하시고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지도안을 작성해서 보여주면서, 나에게 연극적인 부분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셨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조금 놀랐다. 새로운 제안 방식이라 다소 긴장되었지만,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런 긴장은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극적인 역량을 어떻게 수업의 과정에 녹여낼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선생님들의 수업지도안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연극적인 상황, 학생들의 연극행위에 대해 고민하였다. 학교 수업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생긴다. 다음 주 2차 협의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정리해 보아야겠다.



교사의 일기

[2018년 2월 12일 사전 협의 첫날]

1월에 동학년 선생님들과 역사를 주제로 2학기에 연극수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다. 선생님들 간 갈등도 다소 존재했지만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연극을 연계하여 즐겁게 역사적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업에 도전해보기로 하였다. 지원했던 사업에 우리 학교가 선정되었고 사전 협의를 위해 예술강사 선생님께 학교로 와주시기를 요청 드렸다. 그리고 오늘 예술강사 선생님과 만났다. 예술강사 선생님께서는 수용적이면서 연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동학년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덕분에 대화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첫 만남이었지만 대화가 많이 진전되어 동학년 선생님들과 협의했던 내용이 잘 반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예술강사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의 흐름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로 하였고, 다음 주 만남에서 서로가 생각해 온 내용을 공유하고 수업지도안의 흐름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이 즐겁게 연극 속에 빠져드는 수업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렌다.



예술강사의 일기

[2018년 2월 20일 사전 협의 둘째 날]

고민이 많았던 일주일이었다. 수업의 주제가 역사적 사건과 상황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 역사적 지식 없이는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았다. 일주일동안 선생님들이 주신 수업지도안을 보면서 오랜만에 역사공부를 하였다. 내가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학생들에게 어떻게 연극을 활용할지 명확해 질 것 같았다. 다행히 오늘 2차 사전 협의에서 내가 제안한 과정드라마에 대하여 선생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수업의 흐름에서 선생님들과 나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들은 크게 지식적인 부분과 학생 주의집중, 모둠편성, 수업정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는 수업 중간에 연극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맡기로 하여 다양한 연극기법을 활용하거나, 표현에 대한 조언 등을 맡기로 하였다. 다른 학교 수업 때와는 달리 사전에 명확한 역할분담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 수업이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맡은 반의 선생님들에게 수업 중 나와 함께 연기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제안도 하였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과정드라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득하였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연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2학기 때 진행되는 수업이라 아쉽긴 해도 수업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교사의 일기

[2018년 2월 20일 사전 협의 둘째 날]

예술강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오셔서 깜짝 놀랐다. 지난 주 협의한 수업지도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연극 수업을 제안하셨다. 우리가 제시했던 역사 수업에 대해 과정드라마라는 연극 장르로 풀어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리에게 과정드라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옆 반 선생님은 자신이 연극을 해본 적이 없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본 순사나 독립군의 역할을 직접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는 대본을 보면서 읽어도 되니 한번 해보자고 설득하였고, 마지못해 이지만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휴~ 예술강사 선생님의 새로운 연극수업 방식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으로 교사와 예술강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꺼내지는 못했다. 나는 경력이 별로 없어서 동학년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를 많이 느낀다. 옆 학교 선생님은 부장 선생님을 주축으로 나와 동일한 수업을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협의를 된다고 한다. 물론,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도 예술강사 선생님과 협력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동의하였고, 열심히 협조해 주시지만 한계를 느낀다. 각설하고 수업 시간에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2차 협의를 무사히 마쳤다.



예술강사의 일기

[2018년 9월 22일 첫 수업 후]

오늘은 1반과 2반 수업을 진행하는 첫날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고 가볍게 수업지도안을 한번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수업의 흐름을 잡아보았다. 드디어 1반 선생님과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업 전에 학생들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몇 차시에 걸쳐 배운 상태라 바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과 동시에 과정드라마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선생님이 태극기를 멀리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독립군의 역할을 맡아주었고 학생들은 열차 안에 타고 있던 민간인의 역할을 맡았다. 나는 일본 순사의 역할을 맡았다. 수업은 원활히 진행되었고 선생님이 생각보다 독립군의 역할을 실감나게 해주는 바람에 학생들도 수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성공적인 출발이라 생각하였다. 학생들도 연극을 통해 자신이 직접 독립군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 속에서 역사를 체험하듯이 배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1반 선생님의 연기력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2반 선생님과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대본을 보면서 연기를 하시는 바람에 학생들 몰입도가 떨어져 조금은 아쉬웠다. 선생님들에 따라 개인차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예술강사 경력이 오래 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술강사의 수업에 대한 시선과 교사의 열정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하며 첫 번째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교사의 일기

[2018년 9월 22일 첫 수업 후]

오늘 수업이 있기 전까지 예술강사 선생님과 SNS로 수십 번을 연락하며 수업을 수정하고 의견을 구하느라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솔직히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술강사 선생님과 의견 조율이 아닌, 동학년 선생님들께 예술강사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해주면 안 되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별 뜻 없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경력도 적은 나에게는 그저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말이었다. 내년에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연극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믿으며 기운을 내고 오늘 수업에 임하기로 하였다.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드디어 오늘! 독립군 역할을 하기 위해 대사를 외우고 또 외우기를 반복했다. 태극기가 든 보따리를 들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예술강사 선생님의 신호가 울렸다. 난 앞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은 열차 안이었고 아이들은 승객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일본 순사 역할을 한 예술강사 선생님이 나에게 왔고 난 나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연극의 한 장면처럼 잘 마무리 하였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정신없이 한 시간이 흘렀고 수업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내가 연극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하는 일이 매우 즐거웠다. 더욱이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독립군을 도와주려 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체험하면서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교사의 일기



연극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사전 협의 때 정한대로 예술강사 선생님이 연극적인 부분을 맡아주었고, 난 학생들이 모둠구성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역사적 지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업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술강사 선생님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예술강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 나 혼자 연극에 관심이 있는 정도였다면 이런 수업을 만들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반 수업이 끝나고 옆 반 수업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왜 이리 웃음이 나는지.. 옆 반 선생님이 나와 같은 독립군의 역할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참여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끝나고 나서 옆 반 선생님도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얼었던 나의 마음이 확 풀렸다. 앞으로 3반과 4반 수업이 남았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예술강사 선생님과 20분 정도 시간을 내어 부족했던 점과 만족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반 수업을 할 때 몇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예술강사의 일기

[협력 수업 후기]

지금까지 해보았던 수업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의 수업이었다. 물론, 과정드라마를 활용하여 수업을 종종 진행해 본 적은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주제를 먼저 제안해 주시고, 그 주제에 맞춰 서로의 역할을 고민하고,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은 나에게도 낯선 작업이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나에게 수업 전반을 맡기는 편이었다.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들어오시기는 했지만 수업을 참관하시거나, 학생지도를 해주는 역할을



예술강사의 일기

많이 맡아 주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직접 연기를 펼치시기도 했고,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개입해 주셨다. 물론, 수업 전 충분히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간 중간에 메시지로 수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중요했던 것 같았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교사마다 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시선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협력에 대해 소극적인 분들과의 마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1반 선생님처럼 적극적인 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서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아도 담당 선생님의 따라 수업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번 수업에서 특히 보람 있었던 것은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일까..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런 기회가 나에게 또 올 수 있을까?



교사의 일기

[협력 수업 후기]

우선, 색다른 경험을 선물해주신 예술강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예술강사 선생님과 협력수업을 진행해 본적이 없었다. 예술강사가 학교에 배정되면 당연히 예술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나는 학생지도와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번 협력수업을 통해 예술가가 학교에 찾아온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예술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 협력수업의 성공요인이 사전에 어떤 수업 내용, 장르를 할 것인가에 대해 동학년 선생님들과 충분히 고민하였고, 예술강사 선생님께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역할을 명료히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경력이 많지 않다보니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고, 한계에 부딪힌 적도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동학년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참 의미 있는 수업이었고, 재미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함께 해준 선생님들께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멋진 경험이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의 경험으로 예술강사 선생님과 협력수업 방법을 익힌 것은 장점이지만, '다른 예술강사 선생님이 학교에 오셨을 때 몇 분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든다. 예술강사 선생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어느 정도 열의 있게 반영해 주신가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느낀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예술적 경험을 주신 예술강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철없는 나의 욕심으로 시작하게 된 연극 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학년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싶다.

II. 협력수업 알아보기

1. 협력수업의 의미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라는 협력의 사전적 의미처럼 협력수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협력수업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협력을 넘어서는 다양한 차원의 연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협력수업은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일정한 규칙이나 원리에 기초를 두고 학생들에 대해 계획하고, 교수하며, 평가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박대권, 김영식, 2014). 이러한 정의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협의와 협업이 요구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협력수업과 유사한 개념인 팀티칭은 두 명 이상의 교사가 함께 교수하는 상황으로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실행하는 동안 협력을 이루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Španović, Đukic, Ivanović, 2015). 이러한 정의에서 주목할 것은 협력수업이 특정한 수업의 형태가 아닌 함께 가르치는 ‘상황’이며 이 안에서 ‘협력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력수업을 개념화하는 데에 있어 보다 맥락적이고 유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은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업 진행까지 학교 담당 교사-예술강사 간의 상호 협력’으로서 ‘교사의 교육전문성과 예술강사의 예술전문성 간의 상호 보완’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술강사의 ‘단독 수업 불가’ 혹은 ‘학생 관리와 안전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로만 간략히 안내되어 있어,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역할 분담이나 의사소통에 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협력수업에 대하여 예술강사의 ‘단독 수업 불가’ 혹은 ‘학생 관리와 안전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로만 간략히 안내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역할 분담이나 의사소통에 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 예술강사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서 학교 현장에 파견되는 것이므로 학교 담당 교사의 교육전문성과 예술강사의 예술전문성이 원활히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협력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예술강사는 단독수업이 불가하며 교육 계획수립 단계부터 수업 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하여 학교 담당 교사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 예술강사 수업의 최종 책임자는 학교 담당 교사이므로 수업 진행 간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학교 측에 있으며, 사전 방지를 위해 반드시 수업 진행 시 학교 담당 교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신청 및 교육 운영 가이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협력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협소한 의미의 협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은 협조, 지원, 보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이는 협력의 목적이 단순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넘어서 학생들의 심층적인 미적 경험, 예술을 통한 수업 변화, 학교의 창조적 에너지 회복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협력에 있어 예술강사의 교육 활동 지원이나 학교 안에서의 배려와 관심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나 이것이 협력의 핵심 혹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협력해야 하는가 혹은 협력에 참여하여 할 주체는 누구인가 등의 질문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협력은 협조가 아닌 협력 '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며, 관계 혹은 상호작용의 틀에서 협력을 새롭게 그려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은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지식중심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예술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협력수업은 교사와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과 수업에 대한 책무성을 공유하고, 교실 안에서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을 기획하고 구안하며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협력 활동을 포함하며, 협력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즉 협력은 교사 혹은 예술강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수업, 더 나아가 학생들이 기대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예술강사 그리고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협력수업은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지식중심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예술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협력은 서로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수업, 더 나아가 학생들이 기대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협력수업은 교사와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과 수업에 대한 책무성을 공유하고, 교실 안에서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술강사 배치 완료 후 출강 전 진행되는 **사전 협의**에서 협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전 협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협력수업의 과정

■ 사전 협의: 첫 만남

협력수업의 과정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한 해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는 예술강사 배치 완료 후 출강 전 진행되는 사전 방문 협의에서 협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전 협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학교에서는 관리자, 동학년 교사 협의를 통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예술교육의 목표와 방향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 혹은 활동 주제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양질의 예술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만큼 교사의 입장에서는 사전 협의 시, 협력수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교육의 목표와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 설정은 학교의 교육 이념이나 교육과정, 혹은 특성화 방향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또한 협력수업을 위한 환경지원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협력수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교사 자신 뿐 아니라 학교 운영자, 학교 내 동료 교사들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 안에서의 이와 같은 공감과 합의가 있을 때 여러 담임 교사와 소통하여야 하는 예술강사가 보다 원활하게 협력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

사전 협의에 앞서 예술강사는 필요시 관련 교육과정을 찾아 점검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안에서 연간 계획을 유연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유연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기대하는 방향이나 목표에 따라 학습 내용과 활동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 협의에서 담당 교사와 함께 학습 활동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도 협력수업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술강사의 입장에서 사전 협의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 이해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전 협의에서는 담당해야 할 학생들의 특성, 요청되는 활동과 그로부터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니 만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자신의 영역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학교의 상황과 특성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시에 영역 전문가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준비와 함께 논의를 통해서 조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전 협의는 성공적인 협력수업을 위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전 협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방향과 목표, 협력수업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관심, 선호, 발달적 특성, 학습 양식, 선경험 등 학습자 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과 사용할 교구, 재료 등이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에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셋째, 수업 환경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술교육은 추상적이고 인지적인 활동만이 아닌 물질과 기구를 조작하고 다루는 매체를 통한 학습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최적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의 협력 방식이다. 단순히 예술강사의 연간 계획서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교사와 예술강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 중간 협의: 대화와 조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중간 협의는 직접적으로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간 협의는 별도의 협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전후로 하여 수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교사와 예술강사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과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감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나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중간 협의를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협력의 방식이나 정도에 관한 전체적인 방향을 사전 협의에서 결정하였다면, 개별 수업에서의 협력 방식을 상세하게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방식을 나름대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중간 협의의 목적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높은 수준의 미적 경험을 위한 수업 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간 협의가 필요하다. 각각의 예술 매체가 제공할 수 있는 미적 경험에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료, 기자재, 악기, 기구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술적 활동만을 위한 작업실에 비해 학교 환경은 여러 환경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수업에서 학생들이 예술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사와의 협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둘째, 수업에 대한 이해의 공유이다. 협력의 방식에 따라 수업 지도안은 교사나 예술강사가 단독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공동의 작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수업의 비중이나 협력의 형태와는 별도로 교사와 예술강사가 교수학습 활동의 흐름을 공유하고 수업의 전반에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는 과정이 중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협력수업의 어려움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언제 교사가 개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예측하지 못한 교사 혹은 예술강사의 도움이 수업의 흐름에 방해가 되었던 경험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업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한

중간 협의는 별도의 협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전후로 하여 수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사와 예술강사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과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감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상태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중간 협의는 수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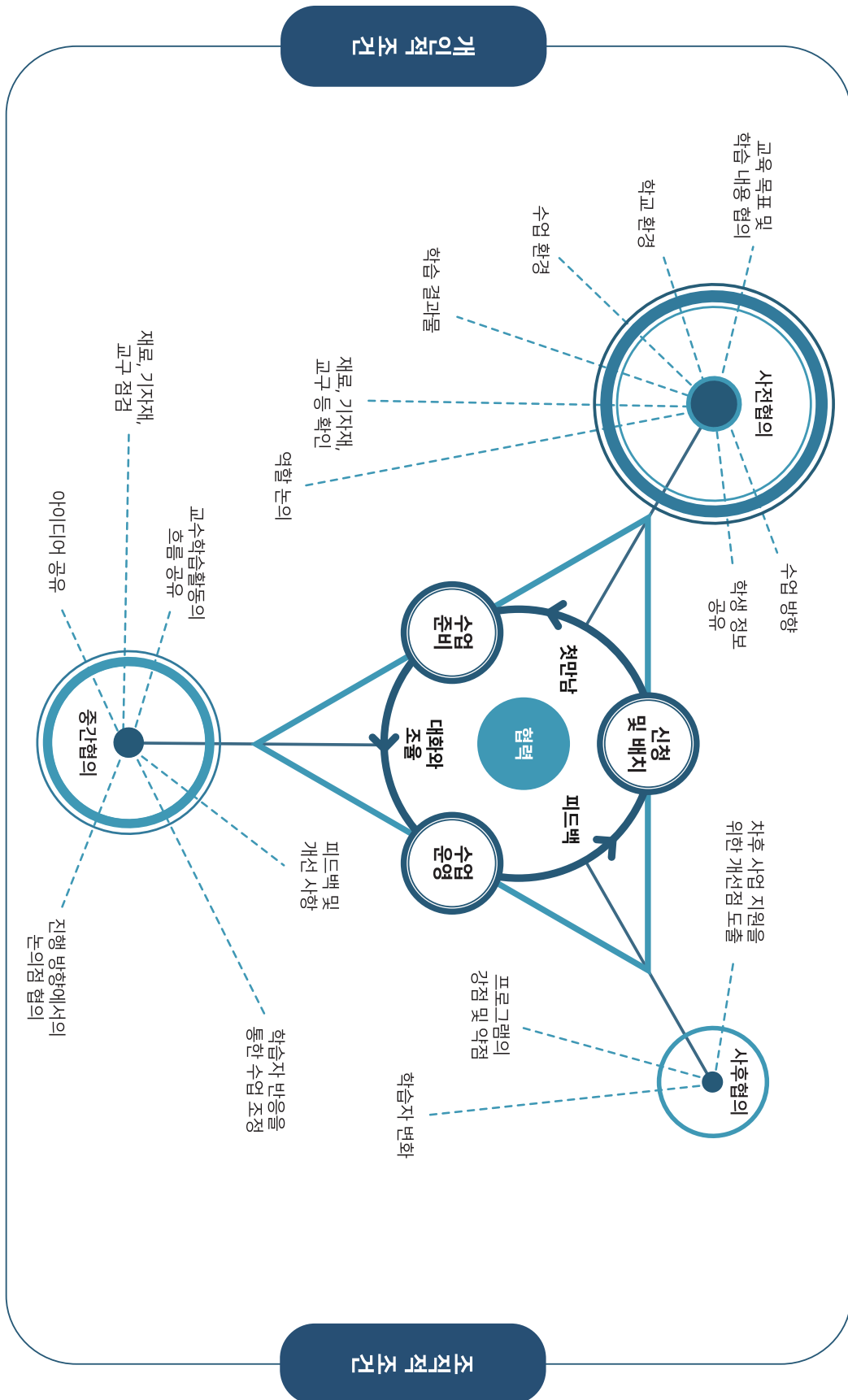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중간 협의는 수업에 대한 피드백의 차원에서 중요하다. 교사와 예술강사는 평가자의 위치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또한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생각의 공유는 교사 혹은 예술강사를 향한 것이기 보다는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수업 내용이나 활용된 재료, 용구 등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수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협력수업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간 협의가 상시화된다면, 교사는 보다 세심하게 학생들의 반응과 성취를 관찰할 수 있으며, 예술강사는 학생들이 새로운 예술 분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태도를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이와 같은 대화 자체가 예술 수업의 질을 향상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 사후 협의: 성찰과 피드백

사후 협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업 운영의 과정을 성찰하며, 상호 피드백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는 학생들의 작품 발표회, 공연 등이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진행될 뿐 구체적인 사후 협의는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출된 개선점들이 차년도에 예술강사 신청, 프로그램 계획, 예술강사의 수업 준비 등으로 환류된다면, 각 학교에 적합한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된다면, 협력수업의 방식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이처럼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예술강사 간의 협의는 순환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후 협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업 운영의 과정을 성찰하며, 상호 피드백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적 협의를 통한 협력

첫 만남	사전 협의 내용	
		● 교사, 예술강사, 동학년 교사, 혹은 학교에서 기대하는 수업의 방향
		●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결과물에 대한 생각 공유
		● 교과서,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목표, 학습 내용 협의
		● 학생들의 관심, 선호, 발달적 특성, 학습 양식, 선경험 등 공유
		● 예술강사의 연간 계획서, 이전 활동 내용, 포트폴리오 등 검토
		● 수업의 계획, 실행, 평가에 있어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 논의
		● 학교에 비치된 예술 활동을 위한 재료, 기자재, 교구 등 확인
		● 수업 일정, 시수, 수업 환경 등의 확인
		● 교실, 예술강사 휴게실 등 학교 환경 안내
대화의 조율	중간 협의 내용	
	수업 전	● 수업 지도안 등 교수학습활동의 흐름 공유
		●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준비물, 교구, 기자재 점검
	수업 후	● 학습자 반응 등을 통한 수업의 흐름, 범위 등 조정
		● 다음 차시를 위한 피드백 및 개선 사항
		● 프로그램 진행 방향에서의 논의점 협의
피드백	사후 협의 내용	
		●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자 변화
		● 프로그램의 강점 및 약점
		● 다음 프로그램의 신청 및 준비를 위한 개선점

예술강사의 준비 사항	교사의 준비 사항
자신의 교육 목표, 기대 효과 정리	동학년 및 관리자 사전 협의
교육 목표에 따른 학습 성과 정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물 사전 협의
관련 교육과정 사전 확인	관련 교과서, 교육과정 준비
수업 준비에 필요한 학습자 고려 사항	학습자 특성에 대한 안내 준비
연간 계획서 및 다양한 활동 계획	희망하는 수업 주제 사전 협의
수업 방향에 따른 예술강사의 기대 역할	수업 방향에 따른 교사의 기대 역할
재료, 기자재, 교구 등 목록 준비	재료, 기자재, 교구 등 사전 확인
수업에 필요한 교육 환경의 특성	학교 일정, 수업 환경 등 준비
	학교 환경 및 편의 제공 등 협의

예술강사의 준비 사항	교사의 준비 사항
지도안 등 수업 계획 공유	지도안 등 수업 계획 공유
흥미로운 예술 활동 재료, 악기, 기자재 준비	동기 유발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자료 공유
해당 수업 준비물, 기자재 목록 공유	해당 수업 준비물, 기자재 준비 사항 확인
학습자의 이해 및 참여 수준 파악	학습자 관찰 및 피드백
수업 성찰 및 공유	수업 성찰 및 공유
진행 상의 개선 사항 공유	진행 상의 개선 사항 검토

예술강사의 준비 사항	교사의 준비 사항
예술강사 관점에서 학습 성과 공유	교사 관점에서 학습 성과 공유
프로그램에 관한 성찰 및 공유	프로그램에 관한 성찰 및 공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언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제언

3. 협력수업의 방식

■ 역할 나누기 vs 역할 갖기

협력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와 예술강사가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수업에 함께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민경훈(2014)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교사의 역할은 ①예술강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②교육 공동체로서 예술강사와 활발한 사전 논의, ③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성 제고, ④문화예술 수업과 관련한 지원이다. 여기에서 교사는 “예술강사가 예술인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자 역할”(p. 29)로서,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도구, 기자재, 공간 등을 확보, 안내하여 예술강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는 위치로 설명되고 있다.

반면 예술강사의 역할은 ①수업 기술 및 학습자와의 소통 방법 개발, ②학교 실정과 교육과정의 이해, ③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업교재 개발 논의로 제시되고 있다. 예술강사에게는 학생들의 풍부한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수업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예술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교육 연구자로서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 논의는 교사와 예술강사가 담당하여야 할 기능을 명료화하고 예술강사에게 예술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교사의 역할을 후원자로 한정하고 수업 개발 및 실행 전반을 예술강사의 몫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협력수업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식이 주와 보조의 관계로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협력수업은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하여 교사와 예술강사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거나 수업의 비중을 나누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권덕원(2013)과 민경훈(2014)은 수업을 담당하는 비중에 따라 협력수업의 유형을 ‘예술강사 주도형’, ‘예술강사+교사 공동주도형’, ‘교사 주도형’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표 II-1>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의 교수비중

구분		특성
A형	예술강사 주도형	예술강사가 주도하면서 현장교사가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수업
B형	예술강사+현장교사 공동주도형	예술강사와 현장교사가 대등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협력하는 수업
C형	현장교사 주도형	현장교사가 주도하면서 예술강사가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수업

출처: 권덕원(2013, p. 20), 민경훈(2014, p. 38)

위의 연구에서는 누구의 주도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뿐만 아니라 수업의 내용 안에서 실기교육, 교과교육, 이론 교육 등의 비중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예술강사 주도형(A형)은 실기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예술강사와 현장교사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유형(B형)은 실기교육과 교과교육이 대등하게 나타나는 경우, 현장교사 주도형(C형)은 설명과 이론으로 가능한 수업으로 설명되고 있다.

수업을 누가 주도하는지에 따른 역할 분담은 협력수업의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와 보조로 역할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수평적 관계에서의 협력이 ‘공동 주도형’에 한정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부분적 역할’이 종종 ‘보조적 역할’로 이해되면서 협력수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협력 수업에서의 역할을 주 혹은 보조의 개념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교사와 예술강사 사이에 경계를 긋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역할 나누기로서의 역할 분담보다는 학교 문화에 참여하는 교사 혹은 예술강사로서의 역할을 상호적 관계에서 인식하고, 각기 다른 예술수업의 장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카고대학교의 국립여론조사센터에서 발행한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 TA) 보고서에서는 좋은 TA의 수업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다음 4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NORC, 2011 p. 16).

- **풍부한 예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수업에 도입**하고, 학생들의 흥미에 따른 질문에 반응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 의미 있고, 복잡하고, 연령에 적합하며, 삶과 관련된 **예술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질문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인지적인 작업에 집중한다.
- 예술 학습이 협력과 그룹 토론을 통해 강화되는 사회적 과정임을 이해한다. 또한 학교에서 예술 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 **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해한다.
- 학교, 병원, 감옥, 교회, 공원, 노인 센터 등 교육하는 기관과 장소의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다. TA가 때때로 한계에 도전하지만, 한계점을 넘지는 않는다.

위에서 제시한 TA의 특징에서는 교육적 전문성과 예술 전문성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좋은 예술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협력 의지와 장소(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좋은 수업을 위한 조건임을 알 수

협력수업에서의 역할을 주 혹은 보조의 개념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교사와 예술강사 사이에 경계를 긋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역할 나누기로서의 역할 분담보다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교사 혹은 예술강사로서의 역할을 상호적 관계에서 인식하고, 각기 다른 예술수업의 장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보다는
협의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있다. 마찬가지로 협력수업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도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될 때 성공적인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된 틀 안에서의 역할 분담이 아닌 소통을 통한 역할 인식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보다는 협의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협력수업 vs 수업 협력

협력수업을 ‘수업 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대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수 상황에 집중하여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학습자와 수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협력수업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와 예술강사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식은 기존에 사용해 온 자신의 수업 방식이나 교수 방법을 변형하고 새로운 교사 혹은 예술강사를 만날 때마다 또 다시 조율하고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학습자, 교육 환경 등의 요구에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협력수업의 이러한 특징이 학교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수업과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협력수업은 협력의 정도에 따라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에서 코티칭을 통한 새로운 예술교육의 실행까지의 연속선 상에 위치합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협력수업은 협력의 정도에 따라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에서 코티칭을 통한 새로운 예술교육의 실행까지의 연속선 상에 위치한다. 즉 수업 안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전문성이 연계되는 빈도와 밀도를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는 단계이자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협력수업을 시도하는 첫 단계는 예술강사의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협력수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학교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협력은 처음으로 교단에 서는 예술강사가 통상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성공 또는 실패(sink-or-swim)와, 시행착오(trial-and-error)를 겪을 수밖에 없는 방식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예술교과 교육과정을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된 예술강사 프로그램은 다양한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협력은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훨씬 관리가 수월하도록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시키며, 학교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의 일관성을 제고시켜 준다.

(임재광, 2013, p.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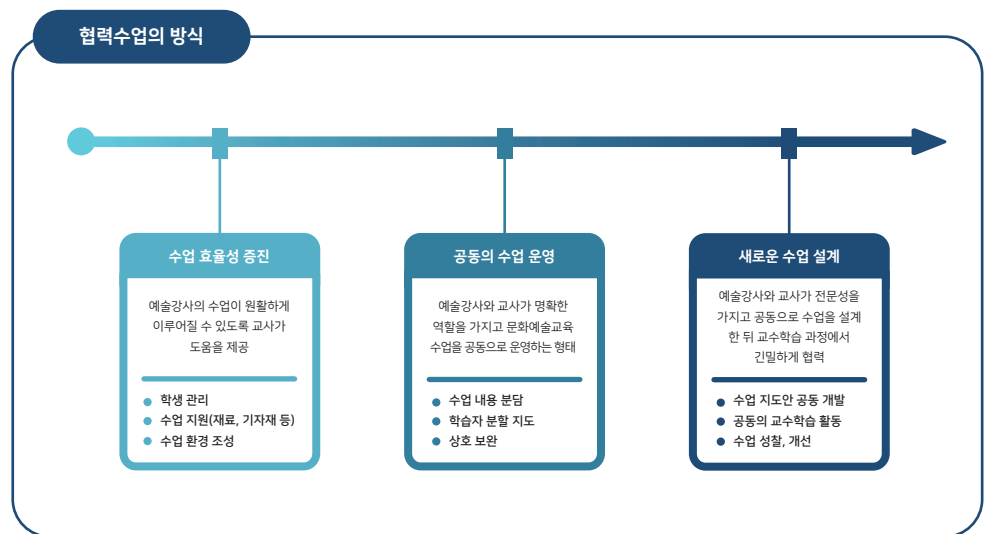
수업 운영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수업 안에서 교사와 예술강사가 보다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수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력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수업의 내용적인 측면, 교수학습 활동의 측면, 학생 지도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경훈의 연구(2014)에서는 이를 ‘수업 지원형태’, ‘기능 보완 형태’, ‘수업 분담 형태’, ‘학습자 분할형태’로 나누어 협력수업의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표 II -2> 이와 같은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 시 수업 목표에 대한 공유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역할 분담도 구체적인 수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수업의 교육과정 구분(교과 연계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등)이나 예술분야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 운영을 계획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협력 수업은 수업의 내용이나 흐름은 교사 혹은 예술강사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되,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교수학습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표 II -2> 협력수업의 교수형태

교수 형태	내용
수업 지원형태	예술강사가 주 교수자가 되고 교사는 수업의 지원자 또는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로, 수업에 임함
기능 보완형태	현장교사가 구체적인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주책임을 맡고, 예술강사는 현장교사가 부족한 실기적인 면을 보완하여 가르치는 형태
수업 분담형태	교사와 예술강사가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에 따라 수업의 일정 부분을 교사와 예술강사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가 맡은 부분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형태
학습자 분할형태	교사와 예술강사가 학습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형태로 선택 주제별, 학습자 수준별 등 학습자 분할의 기준은 수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처: 민경훈(2014)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인 협력수업의 방식은 교사와 예술강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즉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교사와 예술강사의 상시 협의를 통하여 교사 혹은 예술강사 한 사람이 생각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수업에서는 수업의 역할을 나누어 각각 수행하는 역할분담보다는 상호 간에 차별화된 전문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역할 발견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교사와 차별화된 예술적 전략을 예술강사가 제공하고, 교사는 수업구성력을 통해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협력수업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협력수업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수업을 변화시키는 과정적인 개념이며,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의지, 교육 경험, 학교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협력수업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수업을 변화시키는 과정적인 개념이며,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의지, 교육 경험, 학교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협력수업의 수준과 형태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와 예술강사는 상황에 적합한 협력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업의 내용과 방법, 수업 환경, 구성원의 지지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와 연극분야 예술강사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한 초등학교 사회수업에 대한 연구에서 권경희(2017)는 협력수업을 통해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 배움에 무기력한 학생, 가르침에 지친 교사, 지식만 떠도는 무미건조한 교실을 배움과 가르침이 공전하는 역동적인 공간”을(p. 71) 만들고자 하였다고 적고 있다. 동일한 사례에 참여한 교사와 예술강사와의 인터뷰에서 실행 주들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학생들이 질문하는 수준, 역사에 대해 공감하는 수준이 전혀 달라졌다고 진술했다. 또한 교사와 예술강사가 전혀 새로운 수업의 방식을 경험하게 되면서 수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 안에서 깊이 있는 미적 경험이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실행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협력수업은 의미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공유된 목표 아래 이를 수업의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협력적 관계에서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수업은 위 그림에 제시된 연속선 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협력수업은 의미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공유된 목표 아래 이를 수업의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협력적 관계에서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협력수업 시작하기

협력수업이 정해진 수업 모형이나 절차로 쉽게 축소될 수 없다는 점은 현장에서 이를 시도하는 데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예술교육이 실행되는 학교의 문화, 교육과정 상의 위치, 예술 분야 등에 따라 협력수업은 다양한 방식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력수업은 하나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curriculum-in-making)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협력수업을 계획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수업의 교육과정 상의 위치와 예술 분야의 특수성이다. 먼저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교육과정은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교과 혹은 교과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도 전체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위치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여야 할 일련의 교육 내용 안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목적과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예술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을 심화, 확장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국악, 무용, 연극과 같이 교과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예술강사가 지도하는 영역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전체 교과 교육의 이해 안에 유기적으로 녹아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교과 교육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예술강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수업의 방식은 예술분야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예술매체에 따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에 따라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극 분야에서 과정 드라마와 같은 경우 수업 자체가 하나의 연극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교사와 예술강사가 함께 수업지도안과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하나의 연극으로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국악이나 음악 분야의 경우 협력수업이 개별화 수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음악적 표현이나 악기에 대한 숙련도가 다른 한 학급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와 예술강사가 학생들을 분담하여 지도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성취를 경험하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 예술 관련 분야의 경우 예술강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술이

협력수업 시작하기

- 수업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적합한 협력의 방식은 무엇인가?
-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 수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협력을 통해 어떻게 구현 될 수 있는가?
- 수업에서 학생들과 어떤 방식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 수업에서 교사 혹은 예술강사로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 인가?
- 수업에서 교사 혹은 예술강사로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 수업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의 삶을 표현하는 매체로 활용되도록 수업을 구조화하는 측면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발상의 과정이나 성찰의 단계에서 교사가 참여하여 학생들이 학습의 의미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예술 분야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협력수업을 통해 교사는 다른 수업과 연계하거나 추수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보다 완성된 예술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발적인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지속성 있는 미적 경험을 획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분야별 협력 수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II-3> 분야별 협력수업의 특징

분야	교육과정 구분	협력수업의 특성
국악	기본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주제 및 활동 영역에 따른 수업 설계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기자재 및 교수학습에 관해 사전 논의함 개념 중심의 학습은 교사가 이룬 중심으로 이끌어감 실기 중심 학습은 예술강사의 실기 지도를 바탕으로 함
공예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의 인지적, 조작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학습자 특성을 공유함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협력수업의 유형, 비중 등을 협의함
무용	기본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각각의 성품이나 태도가 표현 활동의 출발점이 되므로 교사와 예술강사의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함 학생들의 표현을 돕고, 표현, 감상, 소통, 공감의 연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수업을 설계함
만화·애니 메이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에 활용할 기법, 수업 구성, 준비물, 활용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교사와 예술강사의 개별 지도를 위해 학습자 구성 및 지도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함
사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외 현장학습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안전조치 등을 검토함 사진기 활용, 기자재 준비, 수업 준비 및 지원 등에 대하여 협의함
디자인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제재 설정에 있어 예술강사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수업 준비 및 지원 사항을 협의함 다양한 수업 전개,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충분히 협의함
연극	기본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교육의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사전 계획에 따른 수업 내 역할 분담이 가능함 학생 중심의 공동 창작의 경우 모둠별 학습 활동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협력이 가능함
영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 지도를 요하는 창작 영역의 경우 제작 단계에서 교사, 예술강사가 나누어 순회지도를 분담하는 형태의 협력이 필요함 적용 영역의 경우 주제에 따라 현장 교사의 전공, 관심사와 연결될 때 협력수업으로 개발이 가능함

출처: 민경훈(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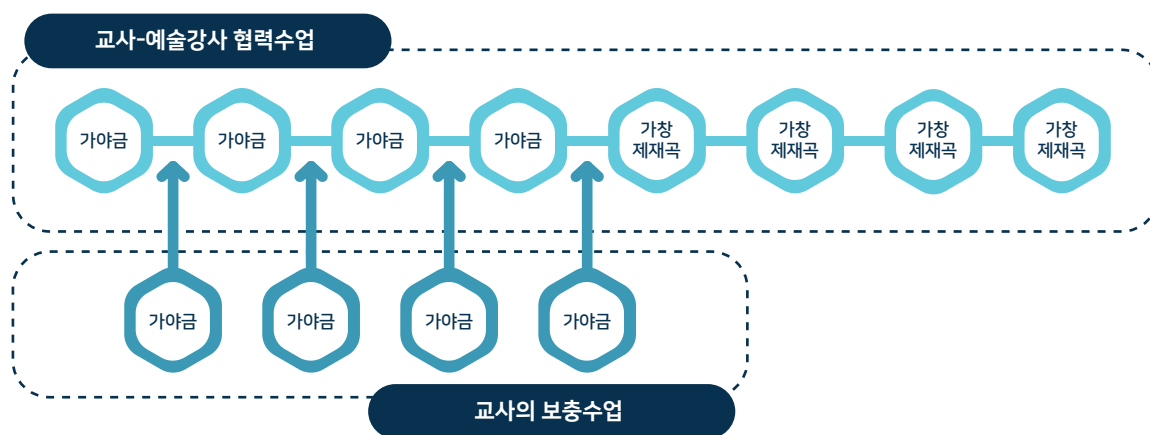
협력수업의 실제 #2. 최 교사와 홍 강사의 국악수업 이야기

본 사례는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사와 국악분야 예술강사의 협력수업입니다. 최 교사는 1년차의 새내기 음악교사로 기본 교과인 음악 시간에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신청하여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1학년 8차시, 2학년 8차시의 적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새로운 예술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설레었습니다. 배정된 국악분야 예술강사는 가야금 전공의 홍 강사로 10년차 베테랑 강사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최 교사와 홍 강사의 협력수업을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업 전의 협력

최 교사와 홍 강사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사전 협의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학년과 시수를 조율한 다음, 어느 공간에서 어떤 기자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업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최 교사는 홍 강사의 세부 전공인 가야금을 적극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는 10대 정도의 가야금이 있었고 악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창제재 위주로 계획했던 내용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가야금 단원을 4차시로 확대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민요도 한 곡정도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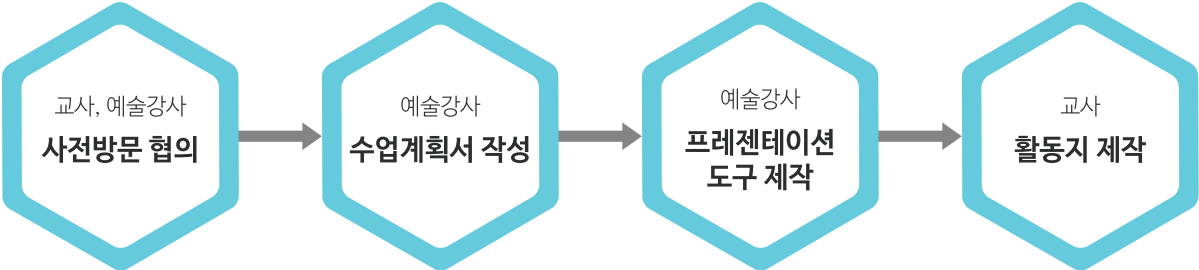
최 교사는 홍 강사와 상의하여 8차시의 수업 중 4차시는 가야금, 4차시는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 제재곡으로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을 학습하는 데에 4차시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 교사는 주 2시간의 음악 수업 중 1시간은 예술강사와 함께 협력수업을 하고, 다른 1시간은 최 교사가 학생들과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하여 가야금 수업을 8차시로 확대하였습니다. 예술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홍 강사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최 교사가 따로 연습해서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형태로 확장한 것이지요.



사전방문을 마치고 홍 강사는 최 교사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가야금 수업 4차시와 교과서 수록 가창 제재곡 4차시에 해당하는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최 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 교사는 홍 강사의 수업계획서를 보고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개념과 내용요소, 성취기준을 체크하여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하였습니다. 홍 강사는 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계획서를 수정

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수업에서 활용할 교수매체를 제작하였습니다.

홍 강사가 작성한 수업계획서의 1차시는 동기유발 동영상을 감상하고 가야금의 유래와 구조, 쓰임 등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최 교사는 감상을 하거나 이론적인 설명을 들을 때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최 교사가 제작한 활동지를 다시 홍 강사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홍 강사와 협의 후 일부 수정하여 반별 학생 수에 맞게 인쇄해두었습니다.



수업 중의 협력



드디어 첫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낯선 외부 강사와 국악 수업에 대한 호기심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최 교사는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한 후 홍 강사를 소개하고 8차시의 국악 수업에서 이루어질 활동들을 안내하였습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교사는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나누어 주었고 홍 강사는 동기유발용 동영상을 보여주고 난 후 가야금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최 교사는 활동지를 작성하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는 활동을 할 때 최 교사와 홍 강사의 협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한 학급에 30명 정도였는데 15명씩 2그룹으로 나누어 양쪽에서 가야금을 신속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 놓았지만, 나누어 주면서 음정이 달라진 악기를 다시 조율했습니다. 홍 강사는 전체 학생들에게 바른 자세와 주법을 지도하였고 최 교사는 수업의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태도 및 성취도를 관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활동지를 회수하고 악기 정리를 지시하는 것은 최 교사가, 악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학생들이 바르게 정리하는지를 살피는 일은 홍 강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도입

- 출석확인 및 학습분위기 조성 (교사)
- 강사 소개 및 수업 안내 (교사)
- 동기유발 활동 (강사)
- 출석확인 및 학습분위기 조성 (교사)

전개

- 악기 배부 및 조율 (교사·강사)
- 바른 자세와 주법 전체 지도 (강사)
- 바른 자세와 주법 개별 지도 (교사)
- 학생 관찰 및 평가 (교사)

정리

- 성취도 확인 (교사·강사)
- 활동지 회수 및 악기정리 지시 (교사)
- 악기정리 감독 (강사)

수업 후의 협력

수업이 끝나자 최 교사와 홍 강사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하고 수업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는지, 활동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몇 명의 학생들은 따로 체크를 해두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주의해서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악기를 배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음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악기를 미리 자리에 세팅해놓고 수업을 시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최 교사가 단독으로 수업하는 보충시간에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연습해야 할지 홍 강사의 피드백을 받고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협력의 형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최 교사와 홍 강사는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함께 고민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미루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예술강사가 서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은 주 역할과 보조 역할이 있는 따로 정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교사와 예술강사가 주체적으로 함께 주도하는 형태였습니다.

학생들은 8차시의 길지 않은 가야금 수업 이후 민요 1곡과 대중가요 1곡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연주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8차시 수업만으로 민요 1곡과 대중가요 1곡을 연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홍 강사의 노하우가 담긴 숫자보의 사용과 최 교사의 보충 수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가야금 수업의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후 자유학기제에도 가야금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악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던 학생들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실력을 심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학교의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하는 행사에서 학생들은 멋진 가야금 연주를 하였고 외국인 친구들이 가야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최 교사와 홍 강사는 내년 수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니다. 올 해 협력수업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학생들과 더 멋진 국악 수업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III. 협력수업의 조건

하나의 유기체가 적절한 조건 안에서 성장하듯이 협력수업 또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즉 교사와 예술강사가 가지고 있는 협력에 대한 인식과 노력은 학교 안에서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문화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1. 협력수업의 성장 조건

하나의 유기체가 적절한 조건 안에서 성장하듯이 협력수업 또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즉 교사와 예술강사가 가지고 있는 협력에 대한 인식과 노력은 학교 안에서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문화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협력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조직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조직적 요인은 학교 문화 안에서 혹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관리자의 지지, 협력에 대한 보상, 협력 공동체가 포함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은 교사와 예술강사가 개인적 혹은 대인적 차원에서 가져야 할 인식, 태도로서 협력수업에 대한 성공 경험과 협력 의지로 대표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협력수업의 사례에서 수집된 교사와 예술강사의 목소리를 통해 협력수업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 관리자의 지지

예술교육에서 협력수업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예술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학교 관리자 차원에서 이러한 가치가 공유될 때 교사-예술강사 간의 협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차원에서 심미적 감성역량을 위한 양질의 예술체험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신청한다면, 협력수업에 대한 목적이 보다 뚜렷이 설정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술강사 협력수업에 대한 관리자(교감)의 인식이 확고하다면 실질적인 지원(공간, 식사, 배려)과 함께 협력수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리자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협력수업의 필요성과 수업 시 협력의 당위성, 협력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실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좋은 예술강사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교감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고...

교사:위에 관리자분들의 마음이 일단 열려야... 저희가 다된다 해도 위에서 아니라고 하시면 되기 어려우니까... ..생활적인 면, 수업적인 그런 면, 지원하는 면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고... ..선생님들(예술강사)이 도움을 요청하시든 편하게 뭔가 소통이 이루어 질 거 같아요.

예술강사: 인식이 좀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문화초등학교에 왔을때 교감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아이들의 결과물 보다는 아이들 창의성과 체험활동에 더 초점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일단 큰 틀을 잡기가 좋았구요.

협력수업은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 관계가 지속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한 교사 혹은 예술강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신청, 매칭, 운영 등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학교 안에서 협력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것까지 관리자의 인식과 지지는 성공적인 협력수업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 협력에 대한 보상

적극적인 협력수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업의 변화, 의미, 가치 등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와 예술강사 모두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수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이는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교사가 단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업 연구, 사전 협의, 중간 협의, 사후 반성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협력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교사: 완전히 협력이 일어나려면 그것을 위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할 꺼고 고려가 필요하죠. 학교에서는 업무 외에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예술강사: 정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 열정페이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선생님들도 하시는 업무량이 많은데 협력수업이 결국에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아주 활발하게 진행 될까하는 의문도 있고.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을 조율하고 연결하는 매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당 교사의 위치는 사업을 신청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즉 담당 교사가 단순히 예술강사가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는 예술수업이 학교 전반에서 일어나게 하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에 대한 보상을 논의함에 있어 담당 교사에 대한 보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담당 교사를 위한 업무 경감, 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조직적 차원에서의 격려와 협조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담당 교사를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자리잡게 된다면, 학교 전체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협력 공동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강사는 한 학년의 여러 학급 수업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협력 수업에 대한 해당 학년의 담임교사들의 인식과 함께 교육 내용, 교육 활동 및 협력의 방식과 역할을 공유할 수 있는 동학년 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안에서 협력수업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이 없다면 교사 혹은 예술강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협력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예술강사가 학교에서 협업해야 하는 교사가 담당 교사 이 외에도 다수임을 생각한다면 협력은 더욱이 개인 간의 대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 거기서 보태져야 되는건 동학년끼리의 협력이 이 협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담당 선생님하고의 호흡만큼이나 같이하는 선생님하고의 호흡이 맞아야 이것도 더 의미가 있는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교사: 사전 협의하기 전에 먼저 동 학년 (협의)하면서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 (예술강사) 본인 선에서 아이디어나 수업 내용을 구상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업 목표나 전체적인 라인과 같은 수업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교사: 신청은 제가 했고, 나머지 3분은 사실 희망하셨던 쌤들은 아니예요. (웃음)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계신데 동학년끼리의 협력이 이 협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각 반마다 그 온도가 다르니까.

협력수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공동체는 협력수업을 확산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 관리자가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 예술강사 간에 협력수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교사와 예술강사가 함께하는 학습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 공동체는 협력수업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성공 경험

교사와 예술강사의 개인적 차원에서 협력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공 경험과 협력 의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협력수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교사와 예술강사들은 해당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이 소재와 방법의 측면에서 '새로운 수업'을 경험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수업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소재들을 활용하여 연령 수준에 적합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예술교육과 학생들의 창의적 가능성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협력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아이들이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으며, '수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한 편의 공연 같은 연극 수업을 교사, 예술강사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일은 교사로서는 수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공의 경험은 쏟아 부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수업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교사: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담임 교사와 외부에서 온 선생님 (웃음) 이랑 한다고 해서 될까 했는데...되더라구요.

교사: 교육연극 수업에 대한 아예...보는 눈이...새로운 수업에 대한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교사: 수업 진행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피셨어요, 얼굴이 좀. 하다 보니 어 이거 좀 재미있네? 또 애들에게 변화가 좀 느껴지고, 어? 괜찮네하는게 느껴지니까

예술강사: 제가 수업하는 교실에서 (담당) 선생님을 수시로 뵈 수가 있거든요. ...연구실에서 다른 반 선생님들과 공유해 주시고...수시로 선생님께 여쭙보고 피드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교사: 첫 반 수업을 하게 되면 예상 못한 일들...수업 시간이 넘쳐나거나, 이런 활동 충분히 할 줄 알았는데 못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의견을 주시고... ...다음 반 수업에서 고려해 가면서 괜찮은 수업이 되는 거죠.

협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 활동에서 기대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협력수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생기게 된다. 교사와 예술강사 모두에게 예술이 제공하는 교육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

이다. 특히 새로운 매체, 재료, 표현 방법을 수업에서 다룰 때,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수업의 모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게 되고 이에 적합한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소통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교사 혹은 예술강사의 협력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성공 경험을 통해 협력수업에 가까이 다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협력수업에 대한 사례 공유 혹은 학습 공동체 등의 기회를 통하여 협력수업에 대해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수업을 통한 학생과 수업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

■ 협력 의지

협력수업은 교사와 예술강사의 동행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예술강사가 좋은 수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자신의 전문성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때 협력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첫 만남에서부터 소통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교사의 태도, 깊이 있는 예술 수업을 방해하는 환경적 장벽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예술강사의 필요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학교 문화 등이 협력수업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또한 학교 문화에 대한 예술강사의 감수성, 고유의 예술 영역을 교육적 목표를 위해 확장하고 변환하고자 하는 적극성, 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예술강사의 자세 등이 협력수업의 조건이 된다.

예술강사: 교사 선생님이랑 계속 탄력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방향성을 조금 이렇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맞게 심화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것을 할 것인지... ...사실 담임 선생님이 가장 전문가이지않아요. 이 아이들을 제일 잘 아는 담임 선생님 의견이 제일(중요하죠).

교사: 예술강사의 의지라기 보단, 제가 볼 땐, 교사분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의 마인드가...그냥 지금은 내가 주가 아니다보니까 굳이 뭐 이렇게 신경을 덜... 예술강사 선생님이 하시니까 나는 보조만 이렇게.

교사: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대로 하겠다. ...이미 교사의 말을 들을 의지가 없으신...

협력 의지는 또한 교사와 예술강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교사의 전문성, 예술강사의 전문성을 몇 가지 특정한 요소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구별되는 각자의 역량이 서로 다른 수업 상황에서 발현되고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어디까지'의 역할 분담보다는 서로의 역할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업에 역동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는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인정과 존중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 의지는 배우는 교사 혹은 배우는 예술강사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여러 협력수업 사례에서는 '수업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술과 교육에 대해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 되었다' 혹은 '학생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즉 수업, 예술, 그리고 학생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배움을 통해 가르침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에 협력수업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협력 의지는 곧 새로운 배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라 할 수 있다.

MEMO!

2. 협력수업 checklist

여기서
잠깐!

협력수업 checklist는 교사 혹은 예술강사 개인의 준비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협력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스스로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협력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보세요 (4=매우 그렇다 / 3=그렇다 / 2=다소 그렇다 / 1=전혀 그렇지 않다)	4	3	2	1
✓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협력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협력수업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에 대하여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협력수업의 의미와 이에 따른 역할을 교사 혹은 예술강사와 공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교사 혹은 예술강사로부터 협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 받으신다면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먼저 교사 혹은 예술강사에게 협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협력수업을 하고자 할 때, 학교의 관리자 혹은 동료교사가 지지하거나 격려해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협력수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노력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학교에서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협력수업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협력수업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고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협력수업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예술을 통해 학교 수업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협력수업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당신의 협력 지수는? () 점				

협력수업의 실제 #3. 끌어주고 엮어가며 아이들 사이로 녹아들기

협력수업 수립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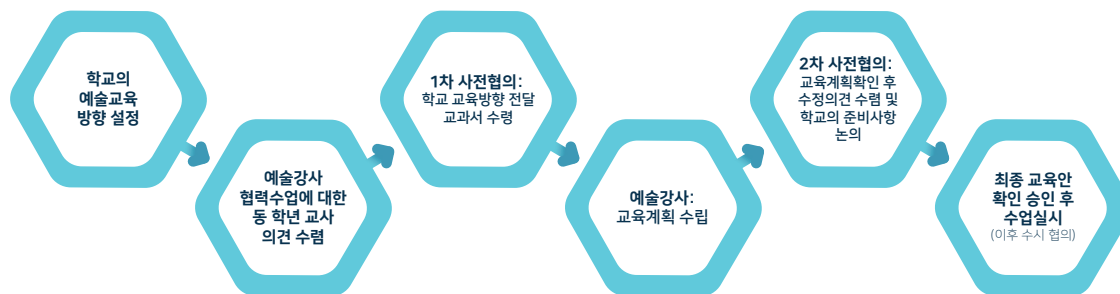
문화초등학교의 협력사례는 학생들에게 좋은 예술경험을 제공해 주겠다는 공통의 목적 하에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이 수업의 흐름 안에서 유연하게 순환하고 있는 '상응적 협력수업'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교사가 실시하기 어려운 교과 활동의 어려움 해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강사 지원요청 과정과는 달리 학교차원에서 예술강사 협력수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학교 내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예술강사의 입장에서도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운영자 차원에서 예술강사 협력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예수업을 위한 별도의 교실을 마련해 주거나 협의 환경이나 수업일 급식 제공 등의 배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교교사들이 협력수업의 필요성이나 목적,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협력관계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예술강사 협력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 담당 교사, 예술강사 모두 높은 편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수업 과정에서 교사와 강사 간의 역할 분담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화초등학교의 협력수업은 학교차원의 예술강사 협력수업 방향설정, 담당 교사 및 학교 내 교사, 동학년 교사들의 의견 조율이 예술강사와의 1차 사전 협의 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서 도출된 협력수업의 방향이 예술강사와의 첫 만남 시 분명하게 전달되었는데, 이는 강사로 하여금 학교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예술강사 협력수업 도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초등학교의 경우 사전 만남, 즉 사전 협의가 총 2회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요청된 사전 협의는 1회이지만 예술강사의 요청에 따라 2회의 사전 협의가 실시된 경우이다. 2회 사전 협의 요청 이유는 학교 방문 전 예술강사의 선발과정에서 학년, 교육 환경, 교육 방향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행정 절차상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예술강사는 2회 사전 협의를 실시한 점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전 협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 조율은 문화초등학교 뿐 아니라 모든 협력수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차 협의에서 예술강사는 학교가 원하는 교육방향을 인지한 후 자진하여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수령하여 학생들이 교과수업을 통해서 경험하는 활동, 수준 등을 이해하고, 이와는 차별화되는 소재와 활동을 구안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합한 특색 있는 활동으로 교육계획 수립을 시도하였다. 2차 협의에서는 예술강사의 계획서를 기반으로 내용의 적합성, 수정해야 할 사항,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준비물 등을 상호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교육계획이 정리되고 해당 학년 담임 교사의 확인과 동의하에 실제 수업을 실시했다. 예술강사는 새로운 활동을 할 때 마다 활동에 대한 설명과 재료의 특성, 담임 교사는 도와주어야 할 부분들을 수업 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실제로 수업 참관 당시 예술강사는 수업시간 보다 훨씬 앞서 학교에 나와 활동 준비물과 교실 정리 등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담당 교사와 당일 활동에 대한 의견을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나누고 있었다. 수업과정 중의 중간협의는 필요한 때 수시로 진행했다. 담당 교사는 수업에 대한 동학년 담임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나 의견 등을 모아 예술강사에게 적절히 전달하고 상호 논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초등학교의 협력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수업에 대한 상호인식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초등학교의 공예수업은 새로운 예술경험에 수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예술체험의 주 진행은 예술강사가, 수업 태도와 안전 확보 등 학생관리 측면은 교사가 담당한다는 기본적인 역할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수업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교사와 예술강사 모두 좋은 수업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기여하고 있었고, 수업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전문성이 작동되어야 할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활동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협력은 수업의 양 축으로서 교사와 예술가의 전문성에 대한 상호 존중 의식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예술강사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말로 학생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예술강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질 높은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여, 가능한 편안하고 존중 받는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꺼운 마음으로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었으리라는 유추가 가능했다.

문화초등학교의 경우 협력수업에는 반드시 담임 교사가 동행하여 함께 수업에 참여해야한다는 사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인식과는 별개로 실제 수업 장면에서 두 사람의 상호 조력적 역할은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술강사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예수업이다 보니 수업의 방법이나 수준 등의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역할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반면 교사의 입장에서 예술강사의 수업은 일반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소재와 방법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기에 수업과정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수업'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유연한 수업협력을 이끌어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협력 방식을 확장하여 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질문에, 담당 교사와 예술강사 모두 수업을 보는 시각의 확장이나 방법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협력수업의 모색을 위해서는 실제로 더욱 많은 협의시간이 필요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학생을 위한 수업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교사와 예술강사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진정한 협력(현재와 비교하여 더 향상된……)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적으로 이상적이지만 그 과정에 투여되는 교사와 예술강사의 시간과 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상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수업 안으로 녹아드는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 장면 재구성



아직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예술강사 선생님은 슈링클스 수업이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오늘 사용할 준비도구들을 배치하고 가지런히 자리를 정리한다. 특히 오늘 사용할 전기오븐의 위치를 재차 살피고 담임 선생님이 앉을 자리와 어린이들의 모둠 배치를 확인한다.

담임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어린이들이 교실로 들어온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주위를 정돈하신다. 학생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모둠책상 가운데 놓인 가위, 네임펜 등에 관심을 보이며 몇몇 친구들은 만져보기도 한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모둠 책상들 사이를 돌아다니시며 친구들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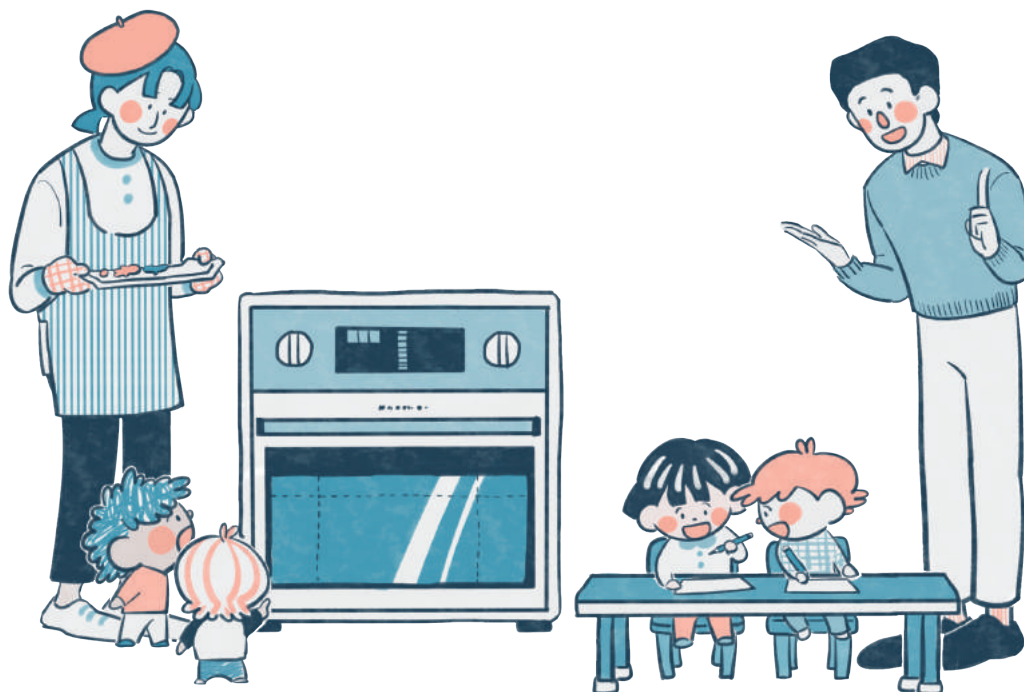
예술강사 선생님이 수업의 시작을 알리시고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빠르게 출석을 확인하시고 오늘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신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꿈을 마법 종이에 표현하기'이다. 담임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직업을 질문한다. 몇몇 어린이들이 자신의 희망을 발표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담임 선생님과 예술강사 선생님 모두 교실을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어린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자유롭게 질문하고 활동을 독려한다.


이제는 마법의 종이 슈링클지에 미래 직업을 그려볼 시간……。예술강사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기에 앞서 슈링클지의 특징을 설명한다. '슈링클지는 그림을 그려 오븐에 구우면 조그맣게 줄어들고 딱딱해져서 예쁜 조각이 되는 마법 종이에요……。오늘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미래 직업을 마법 종이에 그리면 그걸 구워서 요렇게 예쁜 열쇠고리나 브로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예술강사 선생님의 설명에 어린이들의 눈이 동그래진다.

슈링클지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몇 가지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구운 후 뽀족해 질 모서리에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가위로 모서리를 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조그만 손으로 가위질을 한다. 담임 선생님은 교실 안을 이동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위는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모서리를 제대로 잘라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명하고, 도와주신다. 예술강사 선생님도 같이 어우러져서 어린이들의 활동을 살피신다.

이제 슈링클지에 그림을 그려야하는데……. 구운 후에 어느 친구의 그림인지 알려면 이름을 먼저 써야한다. 종이가 줄어들 테니 너무 구석에 말고……. 어린이들이 담임 선생님과 예술강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쓴다. ‘거친 쪽 말고 매끄러운 쪽에 써야 해요~’ 예술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종이 양면의 느낌을 확인하도록 지시 하시면서 각진 모퉁이의 처리와 이름을 써야하는 바른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바빠 움직이며 모둠 지도를 하신다.

어린이들이 열심히 장래의 직업을 마술종이에 그리고 있다. 주어진 종이는 3장……. 이때 예술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종이가 3장이나 되요~! 천천히 마음 놓고 그리세요! 혹시 마음에 안들어도 망쳤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림 그릴 때 망치는 건 없어요! 3장이나 되니까 다시 그리면 되고 고칠 수도 있어요! 마음 놓고 그리세요! 무엇을 그릴지 선택 손을 대지 못했던 몇몇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 한다……. 담임 선생님과 예술강사 선생님은 교실 안을 자유롭게 이동하시면서 어린이들의 그림을 살피신다. ‘OO이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과일과 채소, 도마와 칼을 그렸네!! 요리사가 되려나봐~!’ 예술강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편안하다. 담임 선생님도 열심히 이동하시면서 어린이들의 작업을 살피신다. ‘OO이는 아직도 고민 중이야~? 지난번에 경찰 아저씨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무슨 색 펜이 필요하니? 노란색? 여기 있네…….’ ‘00이는 벌써 두 장이나 그렸어? 선들이 좀 더 잘 보이도록 진하게 그려보면 어떨까!’ 담임 선생님 말씀에 귀를 쫑긋이 기울이며 힘을 내는 어린이들! 교실 안을 분주하게 이동하며 어린이들을 함께 지도하는 두 선생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편안한 느낌이다.

이제는 완성된 슈링클지를 구워야 하는 시간……. 오븐은 한 개 뿐……. 한 번에 다섯 명씩 차례로 구워야 한다. ‘자, 완성된 사람들은 손을 들어 보세요! 차례는 담임 선생님께서 알려 주실 거예요~! 오븐이 매우 뜨거워져서 손으로 만지면 델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오븐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예술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어린이들이 하나 둘 손을 든다. ‘00, 00, 00, 그리고 00, 00 다섯 사람 먼저 나오세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어린이들이 그림을 들고 앞으로 나와 조용히 차례를 기다린다. 담임 선생님은 뜨거운 오븐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쓰신다.

드디어 모든 어린이들이 마법종이에 그린 자기 그림들을 오븐에 구워 냈다. 이제 예술강사 선생님께서 열쇠고리와 브로치 부속을 붙여서 예쁜 장식품을 만들어 주신다. 어린이들의 눈이 반짝 반짝 빛난다! ‘어머나 00은 예쁜 열쇠고리를 만들었구나? 뭐가 되고 싶어? 이젠 수의사?’ 어린이들의 미래 꿈을 보는 담임 선생님의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 ‘여러분들 이제 다음 반 친구들을 위해서 펜과 가위를 준비물 상자 안에 다시 담으세요!!’ 예술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어린이들이 조그만 손들을 움직이며 담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둠 책상 위를 가지런히 정리한다.

수업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초등학교 공예수업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늘 수업에 함께 했던 것처럼 편안하다. 수업과정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매우 자연스럽게 상호 호환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발문, 활동 지도를 순환하면서 수업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2차시로 이루어지는 블록수업이어서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칫 지루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수업일 수 있었으나, 관찰하는 2시간 동안 학생들은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VI. 협력수업 Q&A

Q1. 교사와 예술강사의 진지한 협력수업은 학생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생각 거리

예술영역 협력수업의 당초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술을 '깊이 체험하게'함에 있습니다. 진지한 예술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각 영역의 예술적 방법과 상징을 통해서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감각의 확장과 상징적 구성력 그리고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예술적인 성찰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와 영역 전문가로서 예술가의 진지한 협업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험의 다양성, 기능의 정교함, 흥미 증대의 차원을 넘어서 예술의 과정적 의미를 접할 수 있는 통찰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교사와 예술가, 그리고 경험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가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을 해 봄으로써 예술적인 방식의 '소통'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 타인의 내면을 공감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술을 위한 진지한 협력 수업은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 호환적 과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교사와 예술강사가 동행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 학생들에게는 배움과 가르침을 체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Q2. 협력수업을 위해 교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생각 거리

협력수업을 위해 교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술강사가 진행할 수업을 교육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의 전문성입니다. 예술강사는 예술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학생성장에 도움을 준다면 교사는 예술적 상상력을 교육과정과 학생과 학교에 맞는 예술수업에 대한 주제와 방향에 연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양한 예술장르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술가와 협력을 통해 수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담당(담임) 교사가 예술강사에게 수업을 전적으로 맡기고 교실에 없는 경우도 있고, 수업에 들어와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강사 수업을 전담 시간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이 예술강사 수업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관리, 주의집중, 모둠구성, 수업 정리를 협력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당연한 의무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예술강사 수업시간에 적절히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역량과 더불어 수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예술강사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갖춘다면 지금보다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예술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예술강사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은 서로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관계맺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의 민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느 순간 깨져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깨어진 신뢰는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예술강사들도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학교에서 발휘하기를 희망하며 학교현장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을 위해 노력하는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는 시선과 배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맺음의 출발입니다.



Q3. 협력을 위한 접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 거리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접점은 '학생을 위한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력 수업에 대한 견해는 학교, 교사 또는 예술강사의 입장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협력수업의 목적을 학생에게 두게 되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각자의 역할과 협력이 왜 필요한지를 공유하는 것은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을 위한 의미 있는 경험'을 목적으로 할 때, 예술강사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항상 학생을 만나고 있는 교사의 견해와 도움이 절실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생각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경험, 양질의 경험을 기대하는 교사는 예술강사의 예술적 전문성과 활동의 정교성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업이라는 역동적 상황에서 '학생을 위하여'에 대한 생각의 공유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올해 새로 배정된 학교에 사전방문을 가는 예술강사입니다. 사전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생각 거리

학교에서는 예술강사의 기본 정보 이외의 교육 콘텐츠까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할 수 있거나 그동안 해왔던 교육 프로그램을 포트폴리오로 제작하여 지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학교에서는 예술강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해 왔는지,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등을 궁금해 합니다. 학교급별, 학년군별 교육 프로그램명과 주요활동, 각 프로그램별 적정한 시수, 필요 기자재 및 준비물, 수업 과정이나 결과물 사진, 동영상상을 간략하게 정리한 포트폴리오는 담당 교사와 사전 협의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5.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 거리

사전 협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사와 예술강사가 만나는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술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와 예술강사가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의 방법을 의논하며, 예술 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 분야 따른 실습실, 재료와 용구, 수업기자재 등을 확인하고, 일정이나 수업 시간표 등 교육과정 운영이나 조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강사의 휴식 공간이나 급식에 대한 사항 등 예술강사의 편의를 위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지원 외에도 교사 혹은 학교가 원하는 수업의 방향이나 목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공동의 목적을 향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교사는 예술강사와의 사전 협의가 진행되기 전, 동학년 선생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기대하는 바에 대한 상호 합의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협의는 학생들에 깊이 있는 예술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에 초점을 두어 교사와 예술강사 상호 간의 신뢰와 관계맺음을 시작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MEMO!

Q6. 협력수업 시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생각 거리

현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의 역할을 각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담당 교사는 실제 예술강사가 수업에 들어가는 학년의 담임 교사인 경우도 있고, 사업만을 담당하는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담당 교사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배정 강사 확인, 사전 협의 시간 조율, 사전 협의 시 나눌 내용 준비,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매달 초 출강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예술강사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담임 교사의 경우 예술강사와 협의를 통해 수업의 방향을 설계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협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사전 협의를 아예 진행하지 않거나, 예술강사와 학교의 일정 조율 정도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서는 수업의 방향 또는 주제와 예술강사의 예술적 전문성에 대한 소통과 공감으로 학교와 예술강사의 특색에 맞는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수업을 함께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협의가 힘들다면, 수업에 들어가는 동학년 교사들과 예술강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협력의 방법으로 수업의 방향이 정해지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업의 특성에 따라서 교사가 다양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생 관리와 준비물을 챙기는 역할도 다양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교사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과 지식에 대한 설명, 모둠 구성 후 발표 진행, 수업 결과물 발표 및 피드백, 순회 지도 등 수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고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혹은 보조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 학생의 깊이 있는 예술적 경험을 위해 협력하여 수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협력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Q7. 교사 혹은 예술강사가 협력수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 거리

협력수업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 교사 혹은 예술강사의 경우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력수업을 하고자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협력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교사 혹은 예술강사가 수업에 함께 했을 때 자신을 교사 혹은 예술강사가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입니다. 한 교실에 1인의 교사가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따라서 두 명의 교사가 호흡을 맞추어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낯선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 교사나 학부모 앞에서 하는 공개 수업의 경우 교사라도 여러모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수업 중 예술강사가 교실에 함께 있는 교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배려에서 협력수업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교사 혹은 예술강사의 입장을 추측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수업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교사가 해당 예술 분야의 전공이 아닐 경우, 예술강사의 수업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부분에서 수업에 함께 참여해야 할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예술강사 모두의 전문성이 엮이고 발휘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 수준, 표현 등을 생각한다면 교사가 예술강사가 함께 할 때 더욱 풍부한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협력수업에 대한 인식 혹은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력수업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경험은 아직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력수업으로 학습자들의 교육적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소통 과정에서 촉매제이자 매개로서 본 협력수업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8.

한 학년이 7개 반인 학교에서 2개 학년을 맡고 있는 예술강사입니다. 수업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담임 선생님이 14명인데, 각각의 교사와 협력수업이 가능할까요?

생각 거리

한 명의 예술강사가 14명의 담임 교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협력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정기적으로 해당 학년 교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협력의 형태를 논의하는 것이지만 이것 또한 수업 외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문제로 수업시간 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예술강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각 학년에는 그 학년을 대표하는 교사가 있으므로 각 학년의 대표 교사와 협력수업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학년의 수업 내용이 반별로 같을 것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대표 교사와 함께 수업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Q9.

예술강사와 협력수업을 마친 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을 추수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 거리

예술강사와 협력수업을 마친 뒤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예술의 영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같은 미술 장르는 협력수업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학생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전시장을 꾸밀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시장소, 전시방법, 전시기간 등 기획에서 전시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악, 무용, 영화 같은 움직임 중심의 장르는 수업 후 개별화 연습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악에서 사물놀이를 배우거나, 단소를 배우고 난 후 다른 장단과 곡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교육의 지속성과 성취감도 맛볼 수 있습니다. 무용의 경우 협력수업에서 배운 다양한 수업 방법을 다른 교과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는 예술강사와의 협력수업에서 영상 제작 역량을 교사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Q10. 전공이 같은 교사와 예술강사가 만났을 때 서로 전문성이 겹쳐 협업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생각 거리

전공이 같더라도 교사와 예술강사는 수업 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예술강사의 예술 전문성을 학생 수준에 맞는 난이도로 조정하고, 교육과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등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는 학생들에게 예술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내용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닌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와 예술강사의 전공이 같다면 오히려 협력수업을 통해 기존의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수업을 기획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요소를 학습 주제나 내용에 가미해 보거나, 예술강사의 수업 전후로 교사가 기초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사전 학습 혹은 추수지도 등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미적 경험이 심화되고 지속성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MEMO!

참고문헌

- 권경희(2017). 교육과정연계 교육연극수업 실천사례연구-성남교육지원청 교육연극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9(20), 69-87.
- 권덕원 외(2013). 학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국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고서. KACES-1340-R005.
- 민경훈(2014).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 유형 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고서. KACES-1440-R004.
- 박대권, 김영식(2014). 스포츠 강사를 활용한 초등학교 체육 협력 수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7), 149-165.
- 양은아, 석지혜(2010). 교육으로 다시 쓰는 예술. **평생교육학 연구**, 16(3), 65-99.
- 이혁규(2013). **수업(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잘 모르는)**. 서울: 교육공동체 벗.
- 임재광(2013). 초등교사와 예술강사 간 협력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36, 294-322.
- 조은영, 윤현경, 강지선, 김광구(2018).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2(1), 25-49.
- 최현묵, 김인(2017). 사회서비스 부문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전다체제 및 재정적 특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3), 223-57.
- Španović, S., Đukic, M. & Ivanović, J.(2015). Team teaching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future teachers and pedagogues. **PEDAGOGIJSKA istraživanja**, 12(1-2), 25-39.
- The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NORC) (2011). TA research project: Teaching artists and the future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norc.org/PDFs/TARP%20Findings/Teaching_Artists_Research_Project_Final_Report_%209-14-11.pdf



함께 만드는 수업, 협력수업

교사와 예술강사를 위한 협력수업 길라잡이

발행인

이병호

발행일

2019.1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청소년교육본부 박창준

학교교육팀장 이상은

학교교육팀 권재현

연구책임자

김선아 한양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류해석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박지영 수원대학교 객원교수

정진원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이현정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권덕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김정은 성남신기초등학교 교사

노미향 중원초등학교 교사

양소영 신용산초등학교 교사

유지혜 장기고등학교 교사

이효광 예술강사(디자인)

한지은 용강중학교 교사

김소연 예술강사(무용)

김현주 예술강사(국악)

문난실 울현초등학교 교사

오혜진 예술강사(연극)

윤경숙 개곡초등학교 교사

한경원 예술강사(공예)

홍승은 예술강사(공예)

디자인

서민재 한양대학교

KACES-1910-R001



함께 만드는 수업, 협력수업

교사와 예술강사를 위한 협력수업 길라잡이

www.arte.or.kr